

미술학석사 학위논문

시간의 흐름을 주제로 한 도자조형 연구
-자연에서 나타난 중첩 이미지를 중심으로-

A Study of Formative Ceramics Based on Passage of Time
-Focusing on Overlapped Images in Nature-

2017년 2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예학과

신 지 연

시간의 흐름을 주제로 한 도자조형 연구
-자연에서 나타난 중첩 이미지를 중심으로-

A Study of Formative Ceramics Based on Passage of Time
-Focusing on Overlapped Images in Nature-

지도교수 김 종 현

이 논문을 미술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예학과

신 지 연

신지연의 미술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1월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목 차

요 약	i
표 목 차	ii
도 목 차	ii
작품목차	iii
I.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2
II. 이론적 배경	4
1. 시간의 일반적 고찰	4
1) 시간의 개념과 인식	4
(1) 순환적 시간	5
(2) 직선적 시간	5
2) 실재론적 시간의 의미	6
3) 시각적 이미지를 통한 시간의 표현	7
2. 시간의 흐름에 의한 자연현상	9
1) 자연현상의 종류와 특징	9
(1) 퇴적	9
(2) 침식	10
(3) 풍화	11
(4) 승화작용과 페니텐츠의 특성	12
2) 페니텐츠의 형태와 이미지의 특성	12
3) 자연을 표현한 작품 사례	14
3. 중첩의 일반적 고찰	16
1) 중첩의 개념 및 특성	16
(1) 중첩의 개념	16
(2) 겹의 특성	16
2) 중첩을 이용한 작품 사례	18

III. 작품 제작 및 해설	22
1. 작품계획	22
2. 제작과정	23
1) 소지와 재료	23
2) 성형	25
3) 유약과 소성	26
3. 작품 해설	27
IV. 결 론	35
참고문헌	36
ABSTRACT	38

요 약

제 목 : 시간의 흐름을 주제로 한 도자조형 연구

-자연에서 나타난 중첩 이미지를 중심으로-

시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까지 거부할 수 없는 직선적 시간과 태양과 달이 순환하며 그 굴레를 반복하는 순환적 시간으로 구분되며, 우리는 그 두 가지 시간 선상을 동시에 살고 있다. 시간은 단 방향적인 성향을 띠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그냥 흘러 지나가 버리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순간을 연결 짓는 과정이자 일상을 이루는 요소로 인식되었다. 시간은 자연 속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물 또한 지나온 시간의 결과와 흔적을 표상한다고 볼 수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서 발견되는 자연은 매 순간을 반복적으로 순환되는 과정에서 생성되고 변화하며 그 형상들은 조형적 표현의 예술로써 재탄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시간을 주제로 자연에서 나타난 현상을 모티브로 응축된 시간의 흐름을 다루었으며 중첩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조형미를 담아내기 위한 작품을 연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자연에서 나타난 중첩 이미지를 통해 시간의 흔적에서 나타난 겹으로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시간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본인이 경험한 시간을 바탕으로 어떠한 수단이나 매체가 아닌 작가만의 촉각을 이용해 직접적으로 작품 안에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겹은 규칙적인 구조와 질서를 가지며 간결한 형태 안에서 함축적인 상징적 의미들을 해석할 수 있다.

서론에서는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시간에 대한 개념과 관점, 인식에 대해 이해하고, 시간의 흐름에 의한 자연현상을 탐구하여 시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중첩의 반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규칙적인 표현방법과 이로 인한 다양한 작품사례를 분석하였다. 작품제작 및 해설에서 작품계획과 제작과정, 작품해설 순으로 서술하였다. 계획에 따라 소지가 가진 물성을 연구하고 중첩기법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겹으로 표현하는 과정과 형태에 대한 실험 및 연구를 진행하였다. 배치와 질감을 통해 자연현상을 형상화하면서 공간이 생성되었으며, 방향성으로 인한 움직임의 변화와 연구를 통해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었다.

표 목 차

< 표 1 > 섬유소의 조합비 및 장·단점 비교	24
----------------------------------	----

도 목 차

[도 1] Roman Opalka 「OPALKA 1965/1-∞」 1965	7
[도 2] Anish Kapoor 「무제」 1990	7
[도 3] 민경선	8
[도 4] Susan York 「Untitled」 2006	8
[도 5] 곡상 사층리의 생성 모식도	10
[도 6] 침식에 의한 푸나카이키 현상	11
[도 7] 페니텐츠 현상	13
[도 8] 임선이 「Trifocal Sight」 2008	14
[도 9] Guy Laramee 「Historia Das Americas」 2009	14
[도 10] 전경호 「Nature-Exstence」 2013	15
[도 11] 이호성 「Unidentified Flying Life」 2010	15
[도 12] 자연에서 나타난 겹의 이미지	17
[도 13] 김순철 「About Wish 1311」 2012	18
[도 14] 박찬걸 「Sliced Image ‘James Bond Medley’」 2012	18
[도 15] 권오훈 「Ellipsoid(2004)a」 2004	19
[도 16] 조신현 「합」 2010	19
[도 17] 김해숙 「LayerⅢ」 2012	20
[도 18] 조영학 「오래된 미래」 2013	20
[도 19] Tara Donovan 「Untitled」 2014	20
[도 20] Tara Donovan 「Bluffs」 2005	20
[도 21] 닥종이 분쇄과정	24
[도 22] Gault Paperclay, ULV-85 소지 비교	25
[도 23] 페이퍼클레이를 이용한 접합과정	26

작품목차

[작품 1] Piece 1493	27
[작품 2] Piece 061-2	28
[작품 3] Piece 1432	29
[작품 4] Piece 061	30
[작품 5] Piece 036	31
[작품 6] Piece 035	32
[작품 7] Piece 1486	33
[작품 8] Piece 1444	34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시간은 순환하고 계속 되풀이되며 고정된 불변의 의미가 아닌 변화 과정에서 규칙적인 흐름을 나타내는데, 그로 인해 생기는 모든 현상을 포함해 우리는 시간이라 일컫는다. 또한, 사람들은 태어남과 죽음을 거부할 수 없고 순리대로 받아들이며 사는 직선적인 시간 선상 안에 살아가고 있음과 동시에 반복하고 순환하는 시간 선상 안에 있다. 시간은 단 방향적이고 한 번 흘러가면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시간의 직선적인 인식을 더 강하게 느낀다. 시간의 중요한 기표는 공간과 그 내용물들, 공간의 변화, 공간 안의 오브제들의 실존적, 형태적 변화는 시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기표들¹⁾이라 볼 수 있으므로 시간이 일상적 반복이자 새로움의 흔적이라 정의하면, 시간은 자연의 흐름이 되고 흐름 속에서 공존의 축적물이 된다. 결국,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모든 시간의 과정은 내재한 시간의 축적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자연은 우리에게 쉽과 안식처가 되어주는 존재이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가 크며, 시간의 흐름에 녹아있는 가시적인 표현의 축적이라 말할 수 있다.

자연물은 인간의 의지나 요구와 관계없이 형성되지만 자기 형성으로 성립된다. 또한, 일어나는 현상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본래의 형태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기도 하고 규칙성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는데 이는 가장 접하기 쉬운 기본적인 재료임과 동시에 인공적이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하다. 자연은 이렇게 우리에게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예술 작품의 주된 소재이자 주제가 되어왔다.²⁾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자연물은 침식이나 승화 과정에서 반복하면서 이루어진 겹이 만들어내는 응축된 시간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시간을 의미하는 조각을 반복적으로 중첩해 공간성과 규칙성으로 질서를 갖는 형태와 구조적인 패턴을 지닌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위의 반복적인 중첩의 행위 자체로 시간의 흐름과 응축되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1) 시간의 특성, doopedia 지식백과

2) 박주영. (2015). 「시간의 흔적과 축적을 통한 삶의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9.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자연에서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을 통해 형성되는 형태와 시간을 연결 지어 형상화한 것으로 반복되는 과정을 자연에서 나타난 중첩 이미지로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응축된 시간을 작은 조각들을 통해 시각화하여 제작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시간의 개념과 특성을 탐구하고 응축된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 시간에 대한 관점의 설명으로 시간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국한한다.

둘째, 시간의 흐름이라는 주제에 적합한 이미지의 자료들을 수집하여 탐구한다.

셋째, 시간에 대한 개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자연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중첩 이미지를 중심으로 탐구한다.

넷째, 반복적인 중첩을 이용하여 자연물을 모티브로 형상화한 선행 연구자들의 작품 사례에 대해 분석한다.

다섯째, 반복적인 중첩으로 인해 나타나는 형태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표현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의 개념을 통해 순환적 시간과 직선적 시간, 시간에 대한 실재론적 관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둘째, 자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분석하고, 시간의 흐름을 담아내기 위해 ‘Penitentes (페니텐츠)’라는 자연현상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기본 형태를 도출한다.

셋째, 중첩 기법을 이용한 방법에 파손율을 고려하여 페이퍼 클레이를 소지로 선택하고, 소지의 물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강도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다.

넷째, 자연물을 모티브로 한 작품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응축된 시간을 효과적으로 시각화시키기 위한 ‘겹’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탐구한다.

다섯째, 다양한 유기적인 선들의 효과와 선으로 인한 겹의 배치로 공간감과 깊이감을 표현한다.

여섯째, 연구과정을 토대로 작품 제작을 진행하며 강도로 인한 파손율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소성 후 작은 조각들의 강도를 고

려하여 고온 소성을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시간의 일반적 고찰

1) 시간의 개념과 인식

시간은 단 방향적인 성향을 띠고 있으므로 자칫하면 유유히 흘러가 버리거나 지나가 버리는 것으로 인식된다. 또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일상을 이루는 요소이며, 매 순간순간을 연결 짓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즉, 시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도 흘러가는 것이다.

시간이라는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며, 인간의 근본적인 경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설명이나 정의를 내리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시간은 모든 것이 단번에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자연이 발견해 낸 가장 편리한 수단³⁾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Heraclitus)는 시간은 순환하며 그 자체는 계속적으로 되풀이된다고 하였다.⁴⁾ 이것은 고정된 불변의 의미가 아닌 변화 과정 속 규칙적인 흐름을 나타내며 그로인해 생겨나는 모든 현상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시간이 일상적 반복과 새로움의 흔적이라 정의할 때, 시간은 자연의 흐름이 되고 삶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공존의 축적물이 된다.

이로 하여금 과거부터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의 과정은 내재되어 있는 시간의 축적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지시와 기호라는 인문학적 개념과 자연 속에 나타나는 시간의 연속성을 환원의 시선으로 분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⁵⁾

시간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며 순환의 인식과 직선의 인식이 있다. 전자는 주로 농경 사회의 자연관에 기초한 그리스적·동양적 시간이고, 후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삶에서 염원(淵源)하는 시간이다.⁶⁾ 그러나 어떠한 생활이나 문화에서든 두 가지 모두가 공존하고 있기 마련이다. 보통 환경이나 생활풍습, 문화적 차이, 종교 등에서 그 차이가 나타나지만 우리는 실제 두 가지 관념을 동시에 안고 살아간다.

3) Etienne Klein. 譯박혜영. (1997). 「시간」, 영림카디널, p.83.

4) Dave Robinson, 譯오숙은. (2001). 「철학」, 김영사, p.91.

5) 유경희. (2015). 「시간의 흐름을 표현한 섬유미술의 조형성 : 연구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

6) 박주영. (2015). 「시간의 흔적과 축적을 통한 삶의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7.

(1) 순환적 시간

시간은 연속적이며 반복되고 순환한다. 순환적 시간은 직선적 시간처럼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 순환하는 시간 안에서 현재에 의미를 둔다. 이러한 점은 직선적 시간으로서는 지니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순환적 시간성에 포함되는 구원적인 성격의 한 부분을 형성한다.⁷⁾ 특히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시계가 동그란 원형인 것이 순환적 시간과 관련이 있다. 일 년을 365일,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는 개념 전부를 포함하며, 일상을 표시하는 달력과 시계가 순환적 시간을 개념 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는 순환하는 시간의 테두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직선적 시간이 없으면 시간의 흐름에 대한 방향이나 형태를 갖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누구도 시간이 흐르는 방향을 알 수 없게 되고 기준과 제한 없이 흘러보내게 된다.

결국 삶은 일상을 형성하고 있는 조건들과 주기를 가지고 있는 현상들의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 삶의 순환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며, 시간의 지속성을 시각적으로 변화 주기 위해서는 반복적 행위가 밑바탕이 된다.

(2) 직선적 시간

태어남과 죽음을 거부할 수 없이 받아들이고 순리대로 사는 것을 직선적 인식이라고 한다. 매일매일 반복하고 순환하는 일상으로 순환적 시간 선상에 있으면서 시작과 끝이라는 거부 불가능한 직선적 시간 선상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미래는 앞에 있고 과거는 뒤에 있으며 현재는 그 양자 사이의 한 점으로 간주되어 시간은 이 삼자를 잇는 선과 같은 것으로 표상된다.⁸⁾

우리는 시간을 과거에서 시작되어 현재와 다가올 미래까지의 연장되는 연속의 과정으로 보고 있으므로 과학계에서나 서구에서도 직선적인 시간관을 선호하며, 이론적 관념들은 더욱 가속화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사람은 일직선상의 시간 속에서 경험을 토대로 진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직선적 시간에 대해 시작과 끝이 있으며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선상의 시간에 있는 모든 점들은 현재로써 이 시간점에 의해 경과되는 지속의 순서가 된다. 지속의 개념 속에 이미 경과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보면, 시간의 지속은 그 경과와 동일한 것이지만 시간 직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각각 두 개의 표상으로 나뉘인다. 즉 지속은 시간 직선, 혹은 그것에 의해 나타내지는 시간 간격의 정지성이 되지만, 한편 멈추지 않는 현재는 모든 부동

7) 장지선. (2015). 「일상적 행위의 아카이빙을 통한 시간의 흐름에 관한 시각 표현연구 : 맵핑(mapping)기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2.

8) 소광희. (2001). 「시간의 철학적 성찰」, 문예출판사, p.69.

(不動)이나 고정으로부터 분리된 시간의 운동을 나타낸다.⁹⁾

2) 실재론적 시간의 의미

시간에 관한 관념론의 관점은 순수하고 동시에 단순한 형태로 서술하면 시간은 마음의 소산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며, 한편 물리적 현실 그 자체는 완전히 무시간의 것이라는 가설도 성립되어 있다. 한편 시간에 관한 실재론자는 시간을 독립해 있는 물리적 현실이며 시간의 존재는 그것을 관측하려고 하는 우리의 사소한 노력과 무관계한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오늘 날에는 관념론적인 관점도 실재론적인 관점도 순수한 형태로 등장하는 것은 드물며, 대개의 실재적인 관점은 양쪽의 특색을 모두 갖추고 있다.¹⁰⁾

시간에 관한 경우, 관념론자는 일반적으로 수학적 지향을 지니는데 대해서 실재론자는 자주 물리학 등 자연과학에 보다 강하게 키우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해에 어려움이 없다, 수학을 변화하지 않는 체계(system)와 영원의 진리에 관련되어 있는데 대해서 과학은 특히 실험적인 한 과정을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Newton은 수학원리(Principia Mathematica)』¹¹⁾에서 시간을 흐름으로 정의하고 그것은 「본질의 성질상 자발적으로 외부의 아무 것에도 관계없이 똑같이 흐른다」고 했던 것이다(Newton, 1934년판, p.6).

이 관점은 꼭히 극단적으로 실재론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시간은 완전히 그 자신으로 존재하고, 동시에 그 속에서 일어나는 무엇으로부터도 완전하게 독립적인 매개체로 간주되고 있다. 시간의 흐름의 빠르기는 당연히 인간의 의식을 초월하고 있다. 즉, 우리 인간은 그 빠름을 측정하려 한다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그것뿐으로 시간의 흐름을 빠르게 하거나, 늦추거나 할 수 없고 또한 이 가차 없는 흐름에 미친의 영향도 부여할 수가 없다.¹²⁾

9) Friedrich Kümmler, 譯 권의무. (1986). 「時間의 概念과 構造」, 계명대학교출판부, 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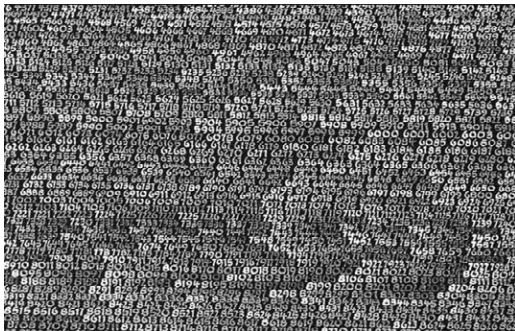
10) P. J. ZWART, 譯 권의무. (1983). 「時間論」, 계명대학교출판부, p.21.

11) 1910~1913년 B.러셀과 A.N.화이트헤드가 공저(共著)한 수학서이다. 수학의 전체를 공리론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한 책이다.

12) P. J. ZWART, 譯 권의무. (1983). 「時間論」, 계명대학교출판부, p.30.

3) 시각적 이미지를 통한 시간의 표현

시각을 통해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법은 가장 구체적이면서 직접적이다. 그러므로 본래 가지고 있는 가치의 이상으로 효과적인 표현이 가능하다. 시간은 순간순간의 기록이자 흐름의 연속이기 때문에, 시간을 인식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도 1] Roman Opalka
「OPALKA 1965/1-∞」, 1965, Canvas



[도 2] Anish Kapoor
「무제」, 1990, Fiberglass and pigment

[도 1]의 작가 Roman Opalka(로만 오파카)¹³⁾는 시간의 연속성을 표현한 작가이며, 1965년 인생의 프로그램(Le programme de vie)이라는 작품 <OPALKA 1965/1-∞> 시리즈를 작업하여 자신의 전 생애 동안 시간성의 의미를 탐구하였다. 그는 “수의 무한성을 인간의 유한성과 대립시키고 조화시킴으로써 단순한 숫자의 나열을 삶의 시간으로 변환시켜 시각화” 하였다.¹⁴⁾ 그는 47년간 시간의 변화와 흐름을 숫자로 자신만의 기준틀을 정하여 생과 사를 숫자로 세분화하여 작품에 표현함으로써 시간의 추이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도 2]는 Anish Kapoor(아니쉬 카푸어)의 작품 ‘무제’로 건축, 설치, 조각 등 다양한 재료와 기법으로 확장된 영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현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통해 현존재의 존재를 이해하고

13) Roman Opalka(로만 오파카) : 폴란드의 개념주의 예술가. 1965년 이래로 숫자 1부터 한 단위씩 더해 나가 무한대로 이어지는 일련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의 캔버스에 하나하나 그려진 숫자들은 흘러가는 시간의 궤적이며 자신의 존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실존의 기록이다. 그의 작품은 <OPALKA 1965/1-∞> 라는 제목으로 동일하며, 각각의 작품은 시작하는 숫자와 마치는 숫자로 이루어진 “부분(Detail)”으로 표시함, 두산백과

14) 유경희. (2015). 「시간의 흐름을 표현한 섬유미술의 조형성 : 연구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60.

해석하는 지평이 시간임을 알려주는 동시에 존재 의미로서의 시간성도 함께 제시¹⁵⁾ 하였다. 그는 시간이 어느 곳에선 존재한다고 생각하여 일상에서 우리 곁에 머물러 흐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도 3] 민경선



[도 4] Susan York
「Untitled」, 2006,
Pigmented porcelain and aluminum

[도 3]의 민경선 작가 작품은 작은 단위형태들을 겹치거나 쌓는 방법으로 시간과 공간을 담고자 하였다. 조각 하나하나에 시간과 기억이 담겨있고 흘러가는 시간을 통해 축적되어가는 존재를 형성하는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를 내포한 24시간을 순환하는 의미를 가진 숫자 0으로 보았다. 원이 가진 지속의 의미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이란 의미를 갖는다.

[도 4]는 Susan York(수잔 요크)의 작품으로 도자기의 흑연, 철강 등 다양한 재료의 조합을 이용하였으며, [도 3]과 마찬가지로 단위의 형태들을 겹치거나 쌓는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평평한 모양의 2D환원 작품을 3차원 형태로 렌더링하여 더욱 사실감이 느껴지도록 제작된 작품이다. 여러 겹으로 포개어져 한 겹, 한 겹이 각기 다른 층을 이루며 시간 단위들이 모여 하나의 겹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러한 층이 반복적으로 축적되면서 하나의 시간 덩어리를 형성하며 축적되어 가는 시간을 공간으로써 보여준다. [도 3, 4]는 모두 단위형태 안에 시간적 의미를 내포하고 이를 축적이라는 목적을 주제로 반복적인 겹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지만, [도 3]에서는 작품을 시간의 순환적 의미를 지닌 원을 기본 형태로 하면서 가진 의미에 대한 차이점이 나타난다.

15) 유경희. (2015). 「시간의 흐름을 표현한 섬유미술의 조형성 : 연구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50.

2. 시간의 흐름에 의한 자연현상

자연물은 인간의 의지나 요구와 관계없이 형성된다. 자기 형성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자연계의 모든 유기체들은 스스로 조절되고 질서를 갖는 형태와 구조의 패턴을 지닌 고유한 모습들을 지니고 있으며, 각기의 유기체들이 보여주는 형태들은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¹⁶⁾ 이러한 자연물은 시간의 흐름과 어우러져 융화되었으며 인간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살아온 시간의 흔적과 결과를 초래한다.

자연은 어떠한 형상에서든 기본이 되며 균형과 조화를 갖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또, 질서와 원칙을 가지고 움직이며 공간 안에서의 리듬을 창조하고, 형태와 색채에 대한 제한 없이 폭넓다. 자연환경이란 어떤 리듬이나 규칙적인 협조 하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무한한 조형 활동의 소재가 되며, 자연에서 발견되는 형태는 조형적인 적응성에 의하여 새로운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형태로서 발전되며 유효성을 확대시키기도 한다.¹⁷⁾

1) 자연현상의 종류와 특징

(1) 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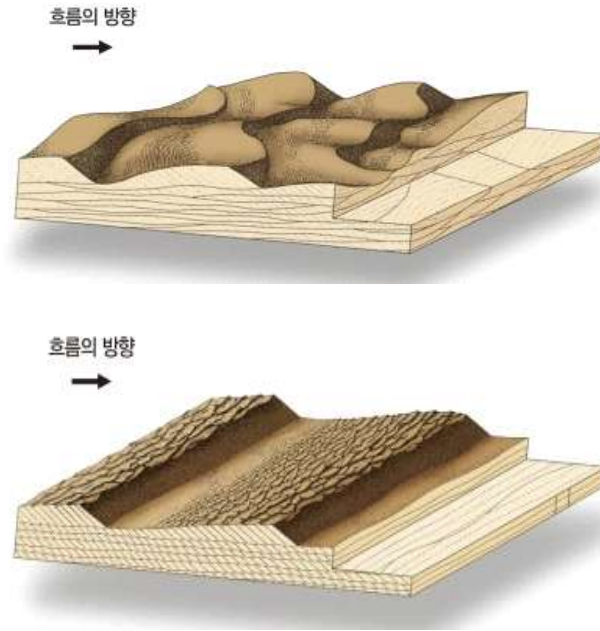
퇴적물이 유체, 흔히 물에 의해 또는 물과 함께 운반되고 퇴적면 위에 쌓이면 입체적인 퇴적구조들이 생성된다. 이 때 물의 역할은, 퇴적물이 많이 함유될수록 줄어들게 되는데, 크게 보아 유체 흐름(fluid flow)-혼탁류(turbid flow)-암설류(debris flow)의 순서로 감소된다. 유체 흐름의 경우 유체가 퇴적물을 운반하는데 비해, 암설류의 경우에는 퇴적물의 이동이 유체를 동반한다.

물의 흐름(水流)으로 대표되는 유체 흐름은 육지와 바다의 얕은 물에서 넓게 퍼져 흐르는 판상류(板狀流, sheet flow)와 수로 안에서 흐르는 하도류(河道流, channel flow)로 구분되며, 퇴적물을 뜬 짐(suspended load)과 밑 짐(bed load)으로 운반하여 퇴적면에 일종의 입체적 모양인 베드폼(bedform)을 만든다. 베드폼(예: 물결자국)의 이동으로 그의 바로 하류와 위쪽으로 퇴적물이 쌓이면 입체적인 퇴적구조들(예: 사충리, 평행충리)이 형성된다.¹⁸⁾

16) 조흥파. (2009). 「조명디자인 과정에 관한 연구 : 자연형태의 적용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4.

17) 한석우. (1991). 「입체조형」, 서울 미진사, p.15.

18) 퇴적작용, doopedia 두산백과



[도 5] 곡상 사충리의 생성 모식도

(2) 침식

침식 작용은 중력에 따른 반응이나 생물에 따른 생물 침식(bioerosion)¹⁹⁾으로 바람, 유수, 얼음 따위의 유동체에 의하여 지표(토양, 바위, 침전물)가 깎임으로써 광물 입자가 떨어지거나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침식 작용은 화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바위 속 광물이 깎이는 과정인 풍화 작용과 구분한다.

침식을 받은 물질은 대개 지표면의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이동한다. [도 5]는 그리하여 산을 깎아 내리거나 계곡을 메우고, 하천을 새로 만들거나 없애면서 지형을 변화시킨다. 침식에 의한 농지의 황폐화로 농지의 비료를 씻어내어 호수와 강을 오염시킨다. 또 침식된 토양은 도랑·못·저수지 등을 막아 관개를 방해한다.

침식 작용은 본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많은 곳에서 인간의 토지 이용에 의해 이러한 작용이 증가되기도 한다. 산림 벌채, 과도한 방목, 무분별한 건축 활동을 비롯한 질 낮은 토지 이용이 특히 이렇다. 농작물 생산에 쓰이는 토지는 자연 속 채소로 이루어진 땅보다 일반적으로 엄청난 양의 침식 작용을 겪게 된다.²⁰⁾

19) 생물침식(bioerosion)이란 생물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해안지역의 지형을 변화시킨다. 예로 산호충(珊瑚蟲)은 열대 태평양수역에서 잘 자라는 강장동물(腔腸動物)이며 석회질의 골격을 만들어 해안지역의 지형을 변화시킨다. 또, 인류는 각종 폭발물·원자력 등을 이용하여 지표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침식을 한다, 두산백과

20) 침식작용, wikipedia 위키백과



[도 6] 침식에 의한 푸나카이키 현상

침식에 의해 생성된 대표적인 예로는 [도 6]의 푸나카이키 현상이 있다. 뉴질랜드 남섬의 웨스트코스트 지방 불러 구(Buller District)에 있는 작은 마을로, 웨스트포트와 그레이마우스 사이, 그리고 파파로아 국립공원의 가장자리²¹⁾에 위치해 있다. 푸나카이키는 침식된 석회암 지역으로 바다의 침전물로 단단한 석회암과 부드러운 사암이 층층이 형성되면서 거대한 압력으로 생성된다. 푸나카이키 현상은 여러 겹의 층이 생기면서 시간에 의해 형성되며 이러한 형상이 마치 팬케이크를 연상시켜 팬케이크 현상이라고도 불린다.

(3) 풍화

풍화 작용은 암석이 물리적 작용이나 화학적 작용으로 인해 점차 토양으로 변해가는 현상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토양은 암석의 풍화 작용을 통해 생성된다. 풍화는 지표의 평탄화 작용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요인이다. 풍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암석의 종류, 구조, 경사도와, 기후 등이 있다. 암석의 정출 온도가 높을수록 풍화에 약하며, 생성 환경과 다를 때 잘 일어난다. 풍화 작용은 풍화가 일어나는 원인에 따라 기계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로 나뉜다.

기계적 풍화는 암석에 압력이 가해져 풍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한랭 건조한 기후에서 잘 일어난다. 대체로 온도 차이에 의한 암석의 수축과 팽창에 의한 작용, 외부 압력의 차이에 의한 작용, 물의 결빙과 해빙에 의한 작용, 바람에 의한 작용, 하천이나 빙하의 침식작용, 생물체의 작용 등에 의하여 일어난다.

화학적 풍화는 광물의 화학적 분해에 의해 풍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이산화탄소가 있는 물이나 나무뿌리에 있는 화학물질로 암석의 성질이

21) 푸나카이키(Punakaiki), doopedia 두산백과

변하게 되면서 부서지는 작용²²⁾을 의미한다. 광물 결정이 약한 구조로 되어 있을수록 풍화에 약하며, 고온 다습한 기후에서 잘 일어난다. 대표적인 화학적 풍화 작용에는 산성비가 있다.

지표에 노출된 암석들이 잘게 부서져 토양으로 변하는 과정. 지표의 암석은 원래 그들이 만들어진 환경과 다른 조건에 놓이게 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변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지표에 노출된 암석에 수반되는 모든 변화를 풍화라고 한다. 풍화 작용에는 물리적(기계적) 풍화 작용, 화학적 풍화 작용, 유기적 풍화 작용이 있다. 지표에 존재하는 암석이 지표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화학성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주로 이산화탄소와 산소 등이 용존해 있는 물과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난다. 그 예로는 석회동굴을 형성시키는 용해 작용과 산화 작용, 가수분해 과정이 있다. 화학적 풍화 작용은 기온이 높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대체로는 물리적·화학적 풍화 작용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²³⁾

지층의 경우, 풍화현상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로, 지층에 나타나는 물결 무늬, 갈라진 틈, 엇갈린 무늬 등은 지층이 만들어질 당시의 환경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물결무늬는 당시의 환경이 얕은 물가나 바다였다는 것을, 갈라진 틈은 만들어질 당시의 건조했던 기후를 말해 주고, 엇갈린 무늬는 바람이 강하거나 바람의 방향이 변하는 곳이었음을 알려 준다. 이렇게 지층 속에 숨겨진 유물과 화석, 무늬들은 우리에게 지층이 형성된 시기를 알려 줄 뿐만 아니라 당시의 기후, 환경을 알려 주기도 한다. 이러한 지층의 단면에서 보여 지는 층과 층을 이루는 구조로 많은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2) 승화작용과 페니텐츠의 특성

승화작용은 고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바뀌거나 기체가 직접 고체로 되는 현상이다. 기상학에서는 얼음에서 수증기로, 또는 수증기로에서 얼음으로 바뀌는 변화를 말한다. 고체가 액체를 거르지 않고 직접 기체로 증발하는 현상, 또는 그 역과정을 포함한다. 일정 온도의 고체에 대해 주위 기체 압력이 승화 압력보다 작을 때 승화가 진행된다. 그때 물질은 주위에서 일정한 열을 흡수한다. 상온 상압에서는 고형 탄산, 장뇌, 요소 등에서 볼 수 있다. 즉, 얼음이 직접 수증기로 변하는 과정이다.²⁴⁾

22) 이수중, 『과학 용어사전』, 신원문화사. 2007, 48P

23) 풍화작용, doopedia 두산백과

24) 승화작용, doopedia 두산백과



[도 7] 페니텐츠 현상

[도 7] 페니텐츠 현상은 안데스 산맥에 있는 고원지대나 킬리만자로 등 고산의 빙하에서 발달하며, 공기 건조로 인해 눈이 녹지 않고 기체 상태로 승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현상이다. 건조한 고산의 빙하는 액체로 녹지 않고 바로 기체 상태로 변한다. 이때 침식 과정이 차등적으로 일어나 녹거나 고체로 승화되기를 반복하여 이루어진 겹이 형성되면서 바늘이나 기둥 모양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중앙 고원지대에서 몇 센치에서부터 2m에 이르는 바늘 모양의 눈과 얼음이 목격되며 심지어 5m에 이르기까지 그 크기가 다양하다. 이러한 현상은 1839년 다윈(Darwin)이 저술한 문헌에서 처음 묘사되었다. Penitentes(페니텐츠)는 흰 모자를 쓴 수도승들의 참회 행진을 의미하는 이름이며, 안데스 산맥에 펼쳐진 모습이 수도승들의 행진과 같이 보여 붙여졌다. 다른 이름으로 빙주군(氷柱群)이라고도 불린다.

3) 자연을 표현한 작품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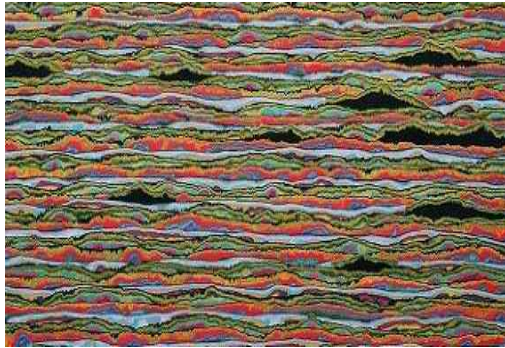
[도 8] 임선이
「Trifocal Sight」, 2008, Digital Print



[도 9] Guy Laramée
「Historia Das Americas」, 2009, Paper

임선이 작가의 작품 [도 8]는 붉게 인쇄된 지형도 수천 장을 하나의 큰 사각 덩어리로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 제작한다. 작품 ‘Trifocal Sight’에서는 지형도의 등고선을 오려내어 새로운 하나의 복합적인 풍경을 작품 안에 생성해낸다. 현대인의 불확실하고 변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현대사회의 양상을 자연풍경에 기대어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고립과 단절이라는 현대인의 절박한 상황을 연상시킴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같은 심리를 이끌어 내는 효과를 준다. 작가는 자연과 문명의 안에서 끊임없는 혼란과 심리적인 갈등을 겪는 현대인들의 삶을 풀어 담아내고자 하였다.

Guy Laramée 작가는 [도 9]의 ‘Historia das Americas’ 작품을 통해 단단하고 두꺼운 백과사전을 비롯한 빈티지한 오래된 책들을 이용해 글라인더로 종이아트 하듯이 조각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질감들을 세밀하게 구현해 내었다. 텍스트로 이루어진 2D 인쇄본을 입체적으로 해석하여 3D의 시각적 형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주로 협곡, 계곡, 동굴 등 자연전경을 책이라는 소재를 통해 표현하였다. [도 8, 9]은 자연물을 형상화하면서 생기는 자연적인 겹들이 존재하며, 그 겹으로 시간의 흔적이나 흐름이 함께 공존하였다. 각기 다른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연현상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시간적 의미가 녹아들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도 10] 전경호
「Nature-Existence」, 2013, 색 한지



[도 11] 이호성
「Unidentified Flying Life」, 2010, Digital Print

[도 10] 전경호 작가의 ‘Nature-Existence’ 작품은 자연의 이미지를 주제로 다뤘으며, 자연을 통한 삶에서 자아의 존재와 생명력을 표현한 작품이다. 무한한 자연의 질서 안에서 생명체가 생성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담아냄으로써 자연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었다. 자연을 소재로 변형된 형태를 차용하여 의도화된 우연의 원리에 유동적 화면과 콜라주 기법으로 긴장된 효과와 다양한 공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자연의 이미지를 그대로 표방하지 않고, 자연적인 대상에서 출발해 작가의 상상력을 동반하여 표출되었으며 이로써 순수한 조형적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도 11]는 이호성 작가의 ‘Unidentified Flying Life’의 시리즈의 한 작품이며, 초자연적인 현상을 자연현상과 융화시킴으로써 이질감과 불편함을 만들어낸다. 그 이질감은 자연현상으로 재해석되며 새롭게 만들어낸 현실을 표현한다. 겹치기(Stack)를 통해 시간과 공간이 재형상화 되어 자연과 융화되어 가는 현실 속에 내면의 흐름을 끌어낸다. 3D라는 디지털과 동양화의 아날로그적 표현법을 융합하여 작품 안에 나타내었다. 이호성 작가는 작가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새로운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은 기존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무한 질주를 하며 공간을 시각으로 표현하고, 시간을 무한 공간으로 재창조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재형상화의 과정을 바탕으로 한 작업이 ‘스택아트(Stack ART)’이다. 작가는 전시를 통해 디지털과 아날로그 융합하여 디지털의 딜레마인 무한복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작품의 희소성을 갖추며 세상에 단 하나만 존재하는 작품이 되어 유일무이한 가치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3. 중첩의 일반적 고찰

1) 중첩의 개념 및 특성

(1) 중첩의 개념

중첩은 어떠한 형태에 다른 하나의 형태가 덧대어 겹쳐지는 즉, 여러 층이 겹쳐 있는 형태를 의미하며 둘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겹쳐지면서 생기는 공간과 움직임까지 포함한다. 또한 중첩은 공간적 깊이와 질서를 파악하는 투명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전면과 후면을 통하여 보여 지는 실체적 속성을 의미하며, 두 공간의 연속성으로 시간성을 보여주기도 한다.²⁵⁾ 중첩은 형태와 형태 사이에 생기는 일정한 공간을 만들게 되는데 이 사이에서 공간적 연속성과 시간적 연속성이 이루어지며, 중첩하는 과정에서 단위들의 배치를 통해 공간적이 깊이와 역동성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변화를 새롭게 창출해 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임과 동시에 공간과 시간에 묶여 고정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중첩은 여러 층이 겹쳐짐을 의미하므로 반복과 큰 연관이 있다. 중첩은 겹쳐진 이미지와 형상을 통해 규칙적인 리듬감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반복적인 패턴 요소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첩에서의 반복성은 두 형태 사이의 연속되는 패턴을 말하며 형태와 형태를 연결시켜주기 위한 질감, 방향, 각도 등으로 인한 움직임과 율동감을 의미한다. 이러한 반복으로 인해 균형감 있는 표현이 가능하며 리듬감을 느낄 수 있다.

반복이 많게 되면 힘의 균일 효과가 나타나서 균형감 있는 표현이 되며, 풍부함을 더해 준다. 그러나 지나치게 반복이 강조되면 전체적인 통일감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시각적 통일성을 주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인 단순한 반복은 단조롭고 융이하지만, 시각적 변화를 가진 반복을 되풀이할 경우 연속적인 리듬감을 가져온다.²⁶⁾

(2) 겹의 특성

겹은 사전적 의미로 물체의 면과 면 또는 선과 선이 포개진 상태, 비슷한 사물이 나 일이 거듭되는 것을 말한다.²⁷⁾ 겹은 입체를 이루는 면들의 층을 의미하며, 면들이 쌓여 만들어 내는 경계들이 모임이다. 겹겹이 쌓여 졌을 때 선의 모습은 자신의

25) 김선경. (2007). 「현대패션에 나타난 중첩(Overlapping)효과의 미적 특성」,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7.

26) 유명강. (2004). 「중첩과 반복에 의한 섬유 설치」,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8.

2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영역을 나타내고 그 단면을 통해 또 하나의 다른 면, 다른 심상을 만들어 낸다.²⁸⁾ 겹으로 인해 느낄 수 있는 공간감이나 깊이감 그 외에도 삶의 흔적이나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응축된 시간의 흐름을 내포하고 있다. 흔히 자연에서 접할 수 있는 형태론적인 겹의 이미지로는 나무의 나이테, 지층의 단면, 용암, 화석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수많은 시간의 겹을 가지고 있고 그 겹겹이 쌓인 흔적들로 과거의 흔적이나 시간이 나타난다. 시간 또한 한 번 지나가면 되돌아오지 않지만, 지속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는 변화로 인해 흔적을 쌓이게 하며 겹을 만들어 낸다. 겹에는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론적인 것과 추상적인 느낌만을 가지는 의미론적인 것이 있다. 구체적 형상을 시각적 겹의 형태로 강조하기도 하고 주제를 병치하거나 동시에 사용하여 생각의 깊이를 표현하는 의미론적인 겹이 존재를 나타내기도 한다.²⁹⁾ 존재하는 겹들 사이사이에 규칙적인 반복과 이로 인해 생기는 공간들이 연속성을 이루며 공간감을 형성한다. 겹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시각화시켜 표현 가능하므로 하나의 이미지로 의미를 전달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다. 겹이 드러나는 자연의 대표적인 예로는 나이테를 들 수 있다.

나이테는 잘려진 나무줄기에 있는 둥근 원 모양의 선을 말하는데, 계절이 바뀔 때마다 형성층에서 세포분열이 일어나면서 나무줄기의 굵기도 달라진다. 나이테는 조건에 따라 나이테의 위치와 모양이 달라지기도 하며, 나무의 나이뿐 아니라 나이테의 폭이 넓고 좁은지에 따라 그해의 강수량, 햇빛, 바람, 기온 등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나무 나이테의 생성된 겹으로 응축된 시간의 흐름과 그 시기의 기후 등 모든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도 12] 자연에서 나타난 겹의 이미지

28) 최석원. (2007). 「섬유질을 이용한 점토레이어의 표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

29) 남행선. (2006). 「겹의 이미지를 이용한 도자조형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9.

2) 중첩을 이용한 작품사례

중첩은 한 겹 한 겹 포개어져 수많은 겹을 형성하면서 그에 따른 공간감을 더해간다. 중첩으로 인한 질서 있는 반복과 수학적으로 계산된 구조와 배치를 통해 다양한 착시 효과를 보여줄 수 있고, 화면 안에서 규칙적인 리듬감을 만들어 내며 시각적인 깊이감과 공간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도 13] 김순철
「About Wish 1311」, 2012,
채색·바느질



[도 14] 박찬걸
「Sliced Image 'James Bond Medley'」,
2012, Stainless

[도 13] 김순철 작가의 ‘About wish 1311’ 작품은 두터운 한지 위에 채색하고, 몇 겹의 실로 화면 안을 꿰매는 방법으로 담백한 도자기의 형태를 담아낸다. 한지의 원료인 닥나무의 물성이 드러나며 붙이고, 새기고, 칠하고, 꿰매기를 중첩하여 화면을 구성하였다. 자기 내면과의 소통, 타인과의 연결통로를 ‘실’이라는 소재로 표현하여, 주변과 소통하는 삶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해석할 수 있다. 오랜 작업과정으로 겹겹이 쌓여 지나간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설렘까지 작품 안에 담아내었다.

[도 14]의 박찬걸 작가의 Sliced Image ‘James Bond Medley’ 는 금속재료인 스테인리스(Stainless)로 결합과 배열의 테크닉을 수반하며, 공간 간의 관계를 새롭게 구성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공간의 미학을 살려 공간간의 관계를 새롭게 구성하는 방식에서 결(Layer)과 층이 만들어내는 유펜미를 보여준다. 결의 파노라마를 따라 촉감을 유도시키고 감상자와의 눈높이를 맞추어 조각의 미학을 보여준다.



[도 15] 권오훈
「Ellipsoid(2004)a」, 2004, Ceramics



[도 16] 조신현
「합」, 2010, Ceramics

[도 15]의 권오훈 작가의 작품 ‘Ellipsoid(2004)a’은 슬립캐스팅을 이용하여 얇은 판들을 겹겹이 쌓아나가면서 전후로 반복되는 미묘한 요철을 만들어 기본형을 구축하고 동적인 기하형을 엮어 새로운 착시를 불러 일으킨다. 기하학적인 기본 형태에 질서정연한 반복과 수학적 구조, 표면의 요철을 통한 옵티컬 일루전(Optical Illusion)³⁰⁾을 보여준다.

‘Ellipsoid(2004)a’는 동적인 기하형으로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구조를 성립시켜 작품 안에서의 반복과 구조적인 질서가 표현되었다면, 반면에 위의 작품 [도 13]에서는 화면 위에서의 중첩으로 인간의 소통을 연결해 줄 소재를 선택하여 화면을 구성하여 둘 다 중첩을 이용한 방법이지만 재료나 방법에 따라 작품에서 나오는 효과가 다르게 느껴진다.

[도 16]는 조신현 작가의 작품으로 석고판에 반복적으로 슬립을 한 겹 한 겹 발라 적당해진 두께의 점토판에 드로잉을 하고 조각한 후, 연마하는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대담하고 단순한 선 위주의 드로잉으로 구사하였으나, 화려한 색소지의 사용으로 선이 부각된다. 표면의 장식과 유동적인 색채는 섬세하면서 아름다운 그로테스크³¹⁾한 드로잉으로 조각 되어진다. 몸체의 기본 덩어리가 만들어지면 조각하여 형태를 만들고 건조와 번조의 반복을 통해 작품이 제작된다.

[도 17] ‘Layer III’는 김해숙 작가의 작품으로 석고판 위에 페이퍼 클레이 슬립을 붓

30) 옵티컬 일루전(Optical Illusion) : 착시(錯視). 이음선을 다루는데 따라서 웨이스트가 날씬하게 보이든지, 스트라이프에 의해 등이 높게 보이든지, 체형이 비만해져 보일 때가 있다. 또한 드레스의 색채가 주위의 색채에 의해 변화된 것처럼 보이든지, 드레스의 색채에 의해서 착용자가 날씬해 보이거나 뚱뚱해 보일 때가 있다. 이와 같이 디자인선이나 색채에 의해서 실제와 다르게 보이는 효과를 착시라고 한다, 두산백과

31) 사람 · 동물 · 꽃 · 과일 등을 포함하는 아라베스크 무늬를 말한다. 원래 그로테스코(grotesco)란 이탈리아어로 보통의 그림에는 어울리지 않는 장소를 장식하기 위한 색다른 의장(意匠)을 가리키는 것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괴기한 것, 극도로 부자연한 것, 흉측하고 우스꽝스러운 것’ 등을 형용하는 말로 사용된다, 두산백과

으로 여러 번 덧발라 일정한 두께를 만들고 판이 끊어지지 않게 한 방향으로 붓질한다. 건조 후, 적당한 크기로 분리해 중첩시키는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색을 넣어서 표현함으로써 겹의 이미지가 선명히 드러나며, 반복적인 중첩을 통해 불규칙한 겹들이 수없이 쌓이면서 공간감을 형성한다. 자유와 표면에서 오는 긴장감을 보여준다.



[도 17] 김혜숙
「LayerⅢ」, 2012, Ceramics



[도 18] 조영학
「오래된 미래」, 2013, Ceramics

[도 18] 조영학 작가의 ‘오래된 미래’는 물레 성형과 흙가래 성형법으로 만든 도자유닛과 부식, 착색을 통해 만들어진 동판조각을 중첩하여 전통적인 수공예 방식으로 제작한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유리나 LED 등을 활용한 혼합재료로 다양한 표현을 시도하였다. 일률적이고 복잡한 현대사회의 이미지를 재해석한 작품이다.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이미지를 형상화할 수 있는 소재와 방법으로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인간의 부조리한 삶을 표현하였다.



[도 19] Tara Donovan
「Untitled」, 2014, Paper



[도 20] Tara Donovan
「Bluffs」, 2005, Buttons

[도 19, 20]는 Tara Donovan(타라 도노반)의 작품으로 작가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인 이쑤시개, 빨대, 스티로폼 컵 등을 수집하여 압도적인 중첩과 촘촘히 축적하는 방법을 통해 우리가 평소에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익숙하게 묘사해내는 작업을 주로 하였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수수께끼 같은 풍경으로 보는 이에게 궁금증을 자아낸다. 작품에 사용한 물질의 잠재력을 작품 안에 그대로 담아내어 우리에게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을 촉구시킨다.

Ⅲ. 작품 제작 및 해설

1. 작품 계획

본 연구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응축되는 과정을 자연현상의 형상을 통해 재해석 하였다. 자연현상인 페니텐츠의 형태의 이미지를 시간을 의미하는 조각을 이용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반복적으로 조각들을 중첩한 페니텐츠의 유기적인 형태를 통해 응축된 시간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이 계획하였다.

첫째, 시간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탐구하고 작품에 접목할 수 있는 시각적 이미지와 형상을 구상하여 구체화 시킨다.

둘째,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이미지로 응축된 시간을 표현하기 위해 시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자연현상 페니텐츠의 형태와 특징을 탐구한다.

셋째, 형태에 있어서 유기적인 선과 중첩으로 인한 반복을 보여주기 위한 페니텐츠의 형상을 기본 형태로 하고 조각들을 중첩해 소성까지의 과정에서 생기는 파손율 및 강도 등을 고려하여 소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다.

넷째, 작품 외부의 선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부각하기 위해 하나하나의 조각들이 중첩되는 위치를 구성하여 배치한다. 중첩되는 조각들의 위치에 따라 전체적인 형태나 외곽에서 보이는 이미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다섯째, 소성된 기물이 소지의 변경만으로는 기타 작업 시 파손에 대한 보완에 한계가 있어 초벌온도를 조금 높은 900℃, 재벌온도를 1250℃로 산화소성 한다.

2. 제작 과정

1) 소지와 재료

연구 작품은 시간의 흐름으로 인한 응축과 시각적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페이퍼 클레이를 작게 조각내어 반복적으로 중첩하는 방법을 이용해 제작하였다.

소지를 선택할 때, 두 가지의 소지로 나눠서 작품을 제작하였는데 백색 소지와 베이지색 소지 두 가지를 이용하였다. 먼저, 연구자가 선택한 페니텐츠 현상을 실제적,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백색도가 좋고 차가운 느낌이 강한 현대소재의 울트라소지 ULV-85번을 사용하였다. 물과 해교제를 캐스팅 기법에 사용되는 비중을 그대로 따르고, 섬유소를 소량 첨가하여 페이퍼 클레이를 제작하였다. 해교제로는 세라스퍼스 44-CF를 사용하여 소지의 점력을 높였다. 베이지색 소지는 미국의 Aardvark Clay Company의 Gault Paperclay를 이용하였다. 조형용 페이퍼 클레이는 전자보다 강도와 점력이 더 좋고, 제작 가능한 형태의 제약이 적었다.

페이퍼 클레이의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백색도가 좋은 현대소재의 울트라소지 ULV-85번을 사용하여 솔리드 캐스팅 비중(물1L:소지1800g)을 따라 슬립을 만든다. (단, 수분율이 높을 경우 생기는 소성 후의 갈라짐을 방지하기 위해 물의 양을 줄이고 해교제의 양을 늘린다.)
- ② 잘게 자른 섬유소를 약 하루 간 물에 담귀 놓고 불린 후, 교반기를 이용해 교반 과정을 거친다. 섬유소를 물에 풀어놓으면 비교적 부드러워져서 손으로 잘게 찢기 편하며 소지와도 쉽게 잘 혼합된다.
- ③ 분쇄된 섬유소의 물기를 적당히 제거하고, 미생물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소량의 표백제를 첨가한다. 이때 표백제를 넣으면 미생물의 번식뿐만 아니라 쉽게 부패되는 섬유소의 변색까지 막을 수 있다.
- ④ 슬립에 섬유소를 한 줌씩 넣어 드릴을 이용해 교반하며 섬유소가 잘 혼합될 수 있도록 이러한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한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넣을 경우 섬유소가 잘 뭉쳐져서 섞이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뭉쳐진 섬유소는 손으로 찢은 후 다시 교반한다. 혼합 후에는 2-3일 소지의 숙성기간을 두는데, 숙성기간을 가진 페이퍼 클레이는 섬유소가 슬립에 잘 흡수되어 성형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된다.
- ⑤ 페이퍼 클레이는 섬유소로 인한 미생물 번식과 변색을 막기 위해 세제를 한 두 방울 첨가하여 교반 후 보관한다. 또한, 점력이 생기면서 섬유소가 잘 엉겨 붙으므

로 이용할 때마다 수시로 교반하여 사용한다.



[도 21] 닥종이 분쇄과정

백색 소지는 물의 비중이나 첨가물에 영향을 받는데 닥종이를 첨가 하였을 때, 소성 후 기물의 갈라짐, 부스러짐과 강도로 인한 파손율에 대해 문제점을 야기하여 섬유소와 조합량을 변경하여 다시 제조하였다. 혼합되는 섬유소의 양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섬유소의 함유량이 많을수록 성형할 때 다루기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생겨 원료와 조합량을 변경하였다.

<표 1> 섬유소의 조합비 및 장·단점 비교

원료	조합비 (소지 : 섬유소)	장점	단점
닥종이	98 : 2	곡선이 있는 형태를 만들기엔 유리하며, 섬유소가 거칠고 질겨서 휘거나 꼬는 등의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다. 휴지보다 강도가 강하고 소성 시 파손율이 낮으며 휘는 현상이 적다.	섬유질이 상대적으로 거칠어서 텍스처의 세밀한 표현이 어렵다. 섬유소가 수분을 흡수하면서 페이퍼 클레이가 빨리 잘 갈라진다. 섬유질이 잘 뭉쳐서 덩어리가 쉽게 지며, 성형 시 작품 표면의 매끄러움이 덜하다.
휴지	98.5 : 1.5	섬유질이 고와서 텍스처의 세밀한 표현이 가능하며, 작품 표면이 닥종이를 넣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매끄럽다. 부드럽고 다루기 쉬우며, 닥종이에 비해 물에 쉽게 풀어지기 때문에 소지와 혼합에 유리하다.	상대적으로 닥종이에 비해 섬유소가 고와서 소지와 혼합해서는 유리하지만 그로 인해서 곡선이 있는 형태를 만들 경우 강도가 약해지며, 형태에 대한 제약이 있다. 그러나 닥종이와 비교했을 때 갈라짐이 덜하고 강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ULV-85번 소지 20kg에 휴지 300g을 섞어 교반하였으며, 손으로 잘게 찢어야 했던 닥종이에 비해 휴지는 물에 쉽게 잘 풀어지기 때문에 소지와 혼합이 유리한 장점이 있었다. 닥종이의 섬유질은 잘 뭉치는 단점이 있어서 잘게 찢어서 사용할 때마다 수시로 교반하는 데 비해 휴지는 뭉침이 덜하고, 파손율의 차이도 크게 보이지 않아 작품을 제작하기에 더 적합하였다. 닥종이를 98:2 비율로 첨가하였을 때, 거칠고 투박한 느낌으로 질감의 세밀한 표현이 어렵고 섬유소로 인한 부스러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섬유소를 휴지로 사용하였으며 비율 98.5:1.5로 변경하여 제작하였다.



[도 22] Gault Paperclay, ULV-85 소지 비교

[도 22]는 소성 후의 페이퍼 클레이를 보여주며, Gault Paperclay와 ULV-85번 소지의 비교가 가능하다. ULV-85번 소지에 비해 Gault Paperclay의 강도가 더 단단하고 파손율이 적었다. Gault Paperclay는 소성 후에 베이지 톤의 색을 띠며, ULV-85번의 소지로 만들어진 페이퍼 클레이는 백색도가 뛰어남을 알 수 있다.

2) 성형

작품 제작에 있어서 두 가지의 소지로 성형하였으며 먼저 사용한 백색 소지와 추 후에 사용한 베이지색 조형용 페이퍼 클레이(Gault Paperclay)를 사용하였다.

백색도가 좋은 ULV-85번 울트라 소지에 닥종이를 첨가한 슬립 상태의 페이퍼 클레이를 석고판 위에 올려 수분기를 적당히 건조시킨다. 어느 정도 건조된 상태의 페이퍼 클레이를 반죽하여 점토 상태로 만든다. 점토 상태의 페이퍼 클레이는 약 이틀간 숙성시킨 후에 사용하기 적합한 상태가 되었을 때 제작된 판에 질감이 적히도록 얇게 밀어 얇은 두께의 판을 만들어 탈 형 시킨 후, 일정한 시간을 건조 시킨다. 일정하게 반건조 된 점토판은 타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손으로 조각낸다. 페니텐츠

형태의 드로잉을 중심으로 잘라 놓 조각들을 배열에 맞게 배치하여 접합한다. 접합 시 사용하는 슬립은 C.M.C를 3-4방울 첨가하여 사용하고, C.M.C로 인해 슬립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굳기 때문에 당일에 사용할 만큼의 슬립의 양만 만든다. 또한, 일정하게 반건조 된 페이퍼 클레이를 사용하여 접합 시 힘을 가할 때, 텍스처가 지워지거나 조각들이 서로 뭉그러지지 않게 한다. 사용하고 남은 페이퍼 클레이는 그대로 비닐을 씌워 보관한다.

두 번째로 사용한 Gault Paperclay는 직접 제작한 페이퍼 클레이보다 강도가 강하며, 부스러짐이나 파손을 또한 적다. 성형 과정에서 섬유 질감의 석고판에 질감이 적히도록 판을 얇게 밀어내는 과정을 거치는데, 질감은 슬립이 잘 스며들고 세밀하게 접합되기 위함이다. 또한 수분율이 적기 때문에 제작한 클레이 페이퍼보다 다루는 데 용이하다.



[도 24] 페이퍼 클레이를 이용한 접합 과정

3) 유약과 소성

투명유를 얇게 분무 시유하여 소성한다. 유약을 최대한 얇게 분무하여 작품의 굴곡진 선과 바깥 표면에 눈의 결정체가 맺힌 듯한 효과를 주고, 작품 특유의 질감과 디테일을 살려 주었다.

1차 소성은 파손율과 강도를 고려하여 기본 소성온도보다 높은 900℃로 고온 소성하였고, 2차 소성은 1250℃로 산화소성 하였다.

3. 작품 해설

[작품 1, 2] Piece 1493, Piece 061-2



[작품 1] Piece 1493

285×210×930 mm Paperclay 1250℃ 산화소성

[작품 1, 2]는 페니텐츠 현상의 기본 형태를 베이스로 하였으며, [작품 1]에서는 반복적인 곡선으로 방향성과 움직임이 두드러져 세밀한 선의 흐름에 따라 시선을 집중하게 한다. 반면에 [작품 2]는 [작품 1]보다 단조로운 선으로 전체적인 형태에 더 집중되며, 층층이 이룬 겹을 따라 조형적인 균형감이 표현되었다. [작품 1]에서는 자연현상 페니텐츠의 형상을 기본 형태로 하여 반복적으로 중첩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시간을 담아내었다. 겹겹이 레이어 된 조각들로 반복되는 시간과 이러한 시간이 쌓이면서 응축되는 자연현상의 과정을 보여주었다. 페니텐츠 특유의 날카로운 선과 차곡차곡 쌓인 시간적 이미지

를 조합하였고, 유기적인 선들이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흠이 작품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부각하였다. 1차 소성은 800℃, 2차 소성은 1250℃로 산화소성 하였으며 투명 유를 얇게 분무 시유하였다.



[작품 2] Piece 061-2

320×220×610 mm Paperclay 1250℃ 산화소성

[작품 2]는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형태를 기본으로 구축하였다. 암석 지층의 단면을 연상케 하여 층층이 분리되어 올린 겹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다가올 수 있게 중첩하였다. 중첩하는 과정에서 쌓여지는 겹은 시간의 기록들을 보여주며 이러한 반복적인 중첩으로 만들어진 층은 시간의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음을 조형적으로 보여주었다.

[작품 3, 4, 5] Piece 1432, Piece 061, Piece 036

페니텐츠 현상의 구조적 특징을 기반으로 공통점을 보인다. 페니텐츠 현상의 특성상 고체에서 기체로,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되면서 부분적으로 깎이게 되는데 이렇게 움푹 팬 공간을 생성한다. 공간이 형성되면서 생기는 곡선의 방향성과 움직임은 생동감을 자아낸다. 각도에 따라서 보이는 면과 질감에 의한 역동적인 흐름이 돋보인다.

[작품 3]는 페니텐츠의 형태 중에서 승화되면서 깎이는 현상으로 인해 일정 부분이 파이면서 생기는 부분이 강조된 형태를 기본으로 하였다. 낮은 형태이나 유기적인 선으로 유동적이고 자유로운 곡으로부터 이루어지며 새로운 공간감을 형성한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 중에서도 과거의 시간을 의미하며, 과거의 시간적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베이지 색의 페이퍼 클레이 소지를 사용하였다. 화면 안에서 페이퍼 클레이가 가진 특유한 질감이 살아나도록 하였으며, 뼈대의 구도를 중심으로 방향성과 움직임이 드러나게 조각을 배치하여 중첩하였다.



[작품 3] Piece 1432

190×215×325 mm Paperclay 1250℃ 산화소성



[작품 4] Piece 061

220×240×610 mm Paperclay 1250℃ 산화소성

[작품 4]에서는 현재와 미래 시간의 의미를 담아 베이지 컬러와의 색의 대비로 구분 지어 시간적 요소를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하였다. 페니텐츠 현상이 가진 형태적 특징을 살려 깊은 홈을 중심으로 두 방향으로 분리했으며 다각도에서 보았을 때 보이는 면과 반복적으로 중첩된 겹의 조화를 의도하였다. 작품의 하단에서 상단으로 올라올수록 곡의 곡면이 선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조각을 배치시켜 시선을 집중할 수 있게 재구성 하였다. [작품 4]는 구조적인 배치로 인한 자연스러운 선의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규칙적인 방향으로 인한 안정감과 겹층을 이루어 균형감 있는 전체적인 형태에 집중되며, 겹층을 이루는 선의 조화로 인한 내부 공간의 깊이감을 질감의 흐름과 함께 나타내었다.



[작품 5] Piece 036

210×295×360 mm Paperclay 1250℃ 산화소성

[작품 5]에서는 안정감 있는 형태가 아닌 다소 불규칙한 반복으로 인해 형태적인 변화를 주었다. 단계적으로 쌓이면서 중첩되어 형성되는 공간과 조각의 배열에 따라 전체적인 선의 흐름의 차이를 볼 수 있다.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주어진 공간이 급격하게 좁아지면서 페니텐츠 현상의 구조적인 특징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작품 6] Piece 035



[작품 6] Piece 035

190×195×355 mm Paperclay 1250℃ 산화소성

작품 하단은 여러 갈래에서부터 시작되어 상단으로 올라가면서 급격하게 좁아지는 굴곡에서 움직임과 방향성을 느낄 수 있도록 시간의 흐름을 묘사하였다. 작품 표면 중심부에 흠을 뚫어 응축된 시간 안에서 비워내지 못한 것을 환기할 수 있는 요소로 표현하였다. 페니텐츠 현상인 얼음 바늘에 형태적으로 가장 가깝게 묘사한 작품으로 날카로운 선과 유동적인 흐름, 움직임으로 공간 안에서 새로운 곡면들이 형성되면서 시각적인 효과와 깊이감을 담아내었다.

[작품 7] Piece 1486

[작품 7]은 선의 흐름 자체에 큰 굴곡과 운동감이 드러나지 않고 보다 안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형태를 구축하였다. 선의 방향에 따라 기본 형태가 갖추어 지면서 유동적 움직임과 그로 인해 생기는 공간과 깊이감이 조화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의도하여 제작하였다. 조각들이 배치되면서 밖과 안을 넘나들며 만들어지는 선과 선 사이의 단면을 겹의 중첩으로 나타내었다. 반복적으로 중첩하여 생기는 선들 사이에서 생기는 명암의 대비로 전체적인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 작품의 형태 안에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형식은 일시적으로 정지된 동작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며 고정된 형태에 머물지 않는 본질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상단부로 올라갈수록 앞, 뒤로 물러나 있는 깊이감을 더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수직적인 배치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구조와 배열은 공간감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게 만든다.



[작품 7] Piece 1486

310×360×860 mm Paperclay 1250℃ 산화소성

[작품 8] Piece 1444



[작품 8] Piece 1444

310×185×440 mm Paperclay 1250℃ 산화소성

[작품 8]은 앞서 보인 작품들과 다른 형태로 분류되며, 페니텐츠의 형상 중 얇고 넓은 단면으로 된 얼음 형태를 묘사하였다. 다양한 크기의 조각을 반복하여 공간이 형성된다. 서로 다른 형태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미묘한 배치의 구성을 통해 나타나는 형태는 깊이감을 드러낸다. 또한, 수직적인 배치로 구성을 함으로써 중첩되어 부분적으로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부분을 연상시킨다.

IV. 결 론

자연은 우리에게 쉼과 안식처이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해 왔으며,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상을 환기해주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시간의 흐름이 녹아있는 공존의 축적물으로써 인식되었다. 이러한 자연물은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흔적과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며, 균형과 조화를 갖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시간 안에서 자연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는 자연과 함께 순환적 시간과 직선적 시간을 동시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을 자연현상의 중첩 이미지로 나타내어 탐구하였고,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시간과 자연현상에 대한 고찰과 선행연구자들의 작품사례를 분석하여 겹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었다. 자연에 나타난 중첩 이미지를 차용하고, 자연현상의 구체적인 형상을 시각화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둘째, 제작과정에 있어 소지에 대한 실험을 통해 소지의 물성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소성 과정에서 생기는 변형이나 파손율에 대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소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

셋째, 반복적인 중첩의 배치를 통해 질서를 갖는 형태와 구조적인 패턴을 지닌 모습을 작품에 담아낼 수 있었다. 이러한 겹은 공간과의 깊이감과 운동감을 보여주며, 겹겹이 중첩되면서 나타나는 선의 흐름과 표면의 우연적인 질감을 통해 응축된 시간의 형상을 시각화하여 나타낼 수 있었다. 그리하여 시간의 흐름이 자연 안에 녹아들어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시간을 의미하는 작은 단위의 조각을 겹겹이 중첩하여 응축된 시간을 표현할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시간과 자연물을 대상으로 연구자의 시각으로 형상화하여 작품 안에 담아내는 연구를 하였다. 시간은 아주 평범한 일상의 단면이자 내면을 개념화하는 과정 중 하나로써 반복적인 일상을 환기하는 요소로 자연현상을 접목해 작품을 진행하였다. 하루하루에 익숙해져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상기시키고, 자연과의 필연적인 관계의식을 조형적으로 표현하여 이를 함께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단행본

- [1] Dave Robinson, 譯오숙은. (2001). 「철학」, 김영사
- [2] Etienne Klein. 譯박혜영. (1997). 「시간」, 영림카디널
- [3] Friedrich Kümmler, 譯권의무. (1986). 「時間의 概念과 構造」, 계명대학교출판부
- [4] P. J. ZWART, 譯권의무. (1983). 「時間論」, 계명대학교출판부
- [5] 소광희. (2001). 「시간의 철학적 성찰」, 문예출판사
- [6] 한석우. (1991). 「입체조형」, 서울 미진사

학위논문

- [1] 김선경. (2007). 「현대패션에 나타난 중첩(Overlapping)효과의 미적 특성」,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남행선. (2006). 「겹의 이미지를 이용한 도자조형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박주영. (2015). 「시간의 흔적과 축적을 통한 삶의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 유경희. (2015). 「시간의 흐름을 표현한 섬유미술의 조형성 : 연구자의 작품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5] 유명강. (2004). 「중첩과 반복에 의한 섬유 설치」,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장지선. (2015). 「일상적 행위의 아카이빙을 통한 시간의 흐름에 관한 시각 표현연구 : 맵핑(mapping)기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 조홍파. (2009). 「조명디자인 과정에 관한 연구 : 자연형태의 적용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8] 최석원. (2007). 「섬유질을 이용한 점토레이어의 표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웹사이트

- [1] 구글, <http://www.google.co.kr>
-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 [3]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 [4]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 [5] Amaco, <http://www.amaco.com/>

- [6] Ceramic Art Association, <http://www.ceramicartswa.asn.au/>
- [7] Ceramic Art Daily, <http://ceramicartsdaily.org/>
- [8] Ceramics Today, <http://www.ceramicstoday.com/>
- [9] Clay Art, <http://www.potters.org/categories.htm>

ABSTRACT

A Study of Formative Ceramics Based on Passage of Time -Focusing on Overlapped Images in Nature-

Shin, Ji yeon

(Supervisor Kim, Jong Hyun)

Dept. of Ceramic Arts

Graduate School of Industry and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ime is divided into distinct, linear time from birth to death, and cyclical time in which the sun and the moon repeatedly circulate. We are subjected to the two types of time simultaneously. Time passes since it is unidirectional. Time however is recognized as a process of connecting moments in our lives and is an element of our daily lives. Time also exists in nature, so natural objects also represent completed events and traces of time gone by. Nature in the flow of time is created and changes while moments repeatedly circulate. This aspect of nature is reborn as formative and expressional art.

This study examined the passage of condensed time with time as a subject and natural phenomenon as mo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works that contain a formative beauty, which can be expressed by overlapped images.

Through the overlapped images in nature, time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time is expressed as layers of traces of time. Based on the time that is personally experienced, time is directly put into the work through sense of touch only, not relying on another means. The layers have regular structures and order, and can represent implicit symbols in a simple form.

In the introduction, the study background, purpose, scope, and methods are explained. In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e concept, viewpoints, and recognition of time are understood. The relations between time and nature are studied by researching natural phenomenon resulting from the lapse of time. Regular methods of expression with repetitive overlap and various pieces of work are analyzed. In work production and explanation, work plan, production process, and work explanation are described. According to plan, properties of paper clay are studied.

Through overlap technique, processes of expressing the stream of time with layers, and experiment on forms are studied. Space is created by shaping natural phenomenon through configuration and texture. Values are rediscovered by studying changes of movement by direction.